



평생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평생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조사단

조사단장 박성복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장

책임연구원 성주현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원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연구원 김민수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Contents

I. 팽성읍은?

1. 지리와 역사 **13**
2. 행정 **16**
3. 산업 **18**

II. 팽성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1. 이대성 **23**
2. 이정숙 **29**
3. 김선경 **33**
4. 물항아리 기증자 **37**
5. 사진기 기증자 **41**
6. 이중하 **47**
7. 박수남 **51**
8. 김병년 **57**
9. 방광문 **61**
10. 안국진 **65**
11. 서봉희 **69**
12. 강호흔 **75**

III. 기타 수집유물

1. 이운재 **83**
2. 김달순 **83**
3. 박영임 **84**
4. 박성복 **84**
5. 안정리 **86**
 - 농사 및 생활 유물
 - 마을 유물
 - 문구점 유물
 - 미군관련 유물
 - 휴게음식점 유물

IV. 조사후기

1. 성주현 책임연구원 **99**
2. 황수근 연구원 **100**
3. 김민수 연구원 **102**
4. 현장조사 사진 **104**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한 ‘팽성읍 마을콘텐츠 및 유물조사’

팽성지역은 조선 후기까지 안성천 이남의 평택시 남부지역 행정 중심지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 왔다. 때로는 충청도 권역에 속하기도 했지만 진위군과 1914년 군면 폐합 때 수원군의 15개면과 충청남도 평택군 전역을 병합하여 면적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금의 평택시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다.

2023년 12월 말까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조성하는 ‘팽성생활사박물관’은 단순히 팽성읍 주민들이 살아온 역사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이 아닌 평택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 나아가 해외 주둔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팽성읍 안정리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과 역사, 기지촌 주민들의 생활사를 한데 모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아카이빙이 되었다.

‘팽성생활사박물관’ 조성 주체인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팽성생활사박물관 조성사업과 병행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평택문화원에 ‘팽성읍 마을콘텐츠 및 유물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역사를 체계화해온 연구기관의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팽성생활사박물관’ 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는 ‘팽성읍 마을콘텐츠 및 유물조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팽성읍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한 개 읍 행정단위가 아닌 과거 독립된 군 단위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기지로 출발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 주둔 미군기지의 핵심 기지로, 현재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면서 항상 냉전의 상징 공간이 되어버린 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촌, 그 속에서 살아온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과 역사를 담아야 한다는 책무가 막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팽성읍이 가진 역사성과 다양한 흔적에 반해 마을 콘텐츠와 유물을 수집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최근 수십 년간의 빠른 지역개발과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옛것들이 잊히고 소실되는 과정을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체감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현장이었던 마을들을 찾아가서 구술을 해보면 다양한 콘텐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과는 달리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새로 지으면서...”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의 연속이었다. 이번 조사가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팽성읍의 소중한 기록과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수집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커져가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성지역의 행정 중심이었던 객사리를 비롯해 안정리, 본정리, 두정리 등 여러 마을에서 지역 주민의 삶이 녹아난 의미 있는 유물을 수집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다행히 이번 ‘팽성읍 마을콘텐츠 및 유물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준

주민들이 많았다는 점이 우리 조사단의 우군이 되어주었으며, 그중에서도 평택학연구소 이대성, 이광섭, 강호흔 위원이 현장에서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준 것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었다. 지역 사랑의 열정이 십분 발휘된 순간순간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조사에 협력해 준 마을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무더운 여름에 시작해 늦가을 과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팽성읍 마을콘텐츠 및 유물조사’를 시작에서 끝까지 현장에서 함께해준 책임연구원인 성주현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과 김민수 객원연구위원, 또 실무를 맡아 모든 과업을 준비하고 진행·정리해준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의 노력은 조사단장이라는 본인의 책무에 날개를 달아준 분들이다.

끊임없는 지원과 지지, 격려를 보내준 이보선 평택문화원장과 문종호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장, 윤을숙 문화관광팀장, 박규리 주무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끝으로 2023년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한 ‘팽성읍 마을콘텐츠 및 유물조사’ 사업이 많은 성과 속에 마무리된 점에 감사드리며, 이를 기반으로 모아진 콘텐츠와 유물을 기반으로 ‘팽성생활사박물관’이 좋은 열매를 맺길 기원해 본다.

2023. 12

조사단장/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장 박 성 복

축 간 사

평성의 삶과 다양한 문화를 기록한 「평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발간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국제적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 우리 고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평성이 그동안 변화해 온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현재의 다양한 문화와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평성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친근하게 우리 고장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가 충실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우리 시의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 12

평택시장

여 백



I. 평성읍은?



여 백

1. 지리와 역사



대동방여지도 14첩 6면-평택일대

평택지역은 산이 낮고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다. ‘평택平澤’이라는 지명도 팽성읍에서 유래됐다. 팽성읍은 삼국시대에는 하팔현이라고 불렸다. ‘물이 여덟 갈래로 흘러드는 고장’이라는 의미이다. 산으로는 부용산·성산·망해산·선말산이 있지만 모두 해발 30m 이하다. 팽성읍의 대표적인 평야인 통한들·번개들·중심들(왕십리들)·도두리들은 모두 근대전후 간척사업의 결과다. 하천은 북쪽으로는 안성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둔포천과 독천이 흐른다. 안성천은 예전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

였으나 이제는 둔포천이 역할을 대신한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온양행궁어로였던 충청수영로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국도 45호선이 객사리를 가로질러 아산방향으로 내려간다. 추팔1리는 조선시대 화천역이 설치됐던 역이었다. 마을 뒤편에는 마장과 우물이 있다.



평택현지도(1872)

‘평택’이라는 지명은 고려 건국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별칭으로 ‘팽성’이라고도 불렀다. 고려시대에 현재의 팽성읍 노양리에 하양창이 설치돼 경양현을 설치했다. 태조 5년에는 신대리 망해산(경양산)에 봉수가 설치됐다. 망해산 봉수는 전라도 여수

의 방답진에서 출발해 한양 목멱산까지 이어진 제5봉수로의 직봉이었다.

1413년(태종 13) 평택현에 현감이 파견됐으며, 경양현은 직산현에 이속돼 경양면으로 편제됐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평택현을 직산현·아산현·진천현과 함께 충청도로 옮겼다가 다시 경기도로 되돌렸다.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의 침입으로 크게 불에 타고 피해가 큰 데다 백성들도 흩어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고을을 폐지(1596년)하고 직산현에 예속시켰다가 고을 백성들의 요청으로 1610년 복구했다.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시되면서 읍내면·소고니면·동면·서면·남면·북면 등 6개 면을 설치했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평택군으로 바꾸어 공주부에 속하게 했다.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면서는 직산군에 속했던 경양면지역(계양)을 평택현에 통합시켰다. 1914년 수원군에 속했던 서평택지역과 함께 경기도 진위군에 통합됐으며 팽성지역은 부용면과 서면으로 분리됐다. 1934년 4월 송화1리 개화마을에 소재지를 두었던 서면(함정·대추·안정·송화·석근·두정·노성·대사·도두·신대·본정·노양·남산리)과 객사리가 중심이었던 부용면이 통합돼 팽성면이라고 했다.

1952년 일본해군시설대가 주둔했던 곳에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안정리에서 함정리·내리·대추리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군기지에 수용됐다. 미군의 주둔으로 안정리 일대는 기지촌으로 변했고 인구가 급증했다. 1972년 9월 1일 평택군 안정출장소가 설치됐으며 1979년 5월 1일 팽성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1980년 2월 평택군 안중출장소가 팽성을 관할로 바뀌었다. 2004년부터는 용산·의정부·동두천 일대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팽성을 대추리·도두2리 주민들을 중

심으로 이전반대투쟁이 시작됐다. 이전반대투쟁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2007년 끝까지 반대했던 대추리 도두2리 주민들이 노와4리 인근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옮겨가면서 일단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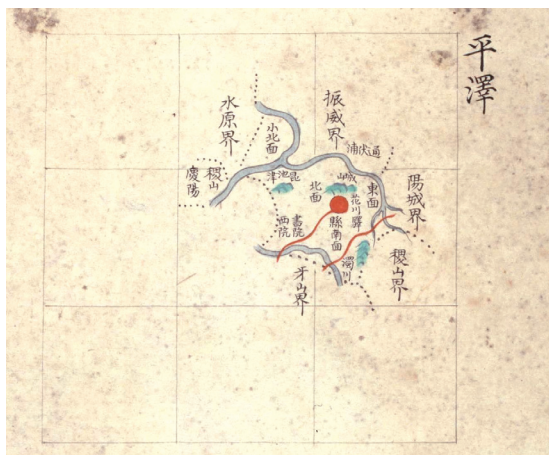
여지도 평택현

2. 행정

팽성읍의 면적은 56.74km²로 평택시 읍면지역에서는 포승읍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인구는 2023년 9월말 현재 16,033세대, 28,541명(남 15,065명, 여 13,476명) 남

성의 비율이 더 높다. 세대 당 인구수는 2명 미만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조직은 73개 리로 299반으로 형성됐다. 팽성을 객사리에 팽성을 행정복지센터와 평택경찰서·팽성파출소가 나란히 있고 건너편에 팽성농협이 있다. 또 부용산 뒤쪽에는 팽성우체국, 평택시립팽성도서관, KT팽성분기국·남산리에 팽성 복지타운, 송화리에 팽성국제교류센터, 남산리에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평택예비 군훈련장·안정리 농성공원 근처에 팽성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다.

교육기관은 1904년 남산리 강난수의 사랑방에서 시작한 근대학교와 1906년 성공회 객사리 성요한교회(현 팽성교회)에서 설립한 신명강습소가 효시다. 강난수 사랑방의 근대 학교는 1913년 팽성읍 객사리에 평택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고 신명강습



조선지도 평택현

소도 일제강점기까지 명맥이 이어졌다. 1927년 부용면과 서면 주민들의 발의와 교육당국의 지원으로 개교한 부용초등학교가 팽성읍 객사리에 있다. 팽성읍 송화2리 입구에는 일제강점기 송화간이학교가 발전해 설립된 팽성초등학교가 있고, 팽성읍 본정리 꽃동산 기슭에는 도두리강습소가 발전해 설립된 계성초등학교가 있다. 옛 대추리 마을 대추초등학교는 2000년 폐교됐으며, 팽성읍 노와1리에 있었던 노와분교도 폐교돼 경기유아체험교육원이 됐다. 2005년 3월 송화택지지구 내에 송화초등학교

가 개교했다. 팽성읍에는 5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2개교가 폐교했고 1개교가 신설돼 모두 4개가 있게 됐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팽성읍 남산리의 청담중·고등학교가 유일하다. 공공체육시설로는 부용산 동북쪽에 자리 잡은 팽성레포츠공원, 농성공원, 추팔근린공원 그리고 개발진행 중에 있는 부용산공원과 내리공원이 있다.

3. 산업



해동지도 평택현

고대 이후 팽성읍지역은 농업과 어업, 염업이 발달했다. 염업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여지승람에 ‘고려후기 경양현을 설치하고 수령에게 염장관을 겸임시켰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나 명례궁과 같은 궁실, 순화군 같은 왕족, 흥윤성이나 서거정 같은 구신들, 역원, 군대 등이 주도해 국방전과 역둔토를 간척했다. 조선후기에는 민중들이 간석지나 공유수면을 매워 원뚝을 쌓고 간척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문교에서 추팔리 사이로 펼쳐진 통한들은 이 시기에 간척된

들판이다. 일제강점을 전후해서는 신궁리, 신호리 일대의 한판들, 번개들, 본정리의

중심들(왕십리들)이 간척됐고, 신대리, 도두리 일대의 도두리들은 한국전쟁 뒤에 대규모 간척이 이뤄졌다.

노양리 경양포, 노산리 노산포, 노성리 신성포, 구 대추리의 곤지나루, 석봉리의 원봉나루에서는 포구상업과 어업이 발달했다. 노양1리 경양포는 고려시대 하양창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직산현과 평택현의 해창이었다. 안성천 하류의 어업과 포구상업은 아산만방조제의 공으로 중단됐고, 대신 내수면어업이 시작됐다. 상업은 1952년 안정리와 함정리 일대에 군이 주둔하면서 기지촌 중심 상업으로 변화됐다. 1993년 11월 팽성읍 추팔2리에 추팔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농업과 상업만 있었던 팽성읍에 공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됐다.

- 《평택시사》(2015) 발취



진위군 팽성면(1912)



II. 팽성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여 백

1. 이대성 본정리



이대성 가옥 유물 조사

선생님으로, 그리고 농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 학교 밖에서는 농부, 그렇게 살았지."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텃밭에는 오이며 고추, 산딸기 등이 여름의 햇살을 양껏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다. 담벼락 옆 나무에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오디가 매달려 있었다. 이대성 기증자는 오이를 보며 며칠 더 남았다고 중얼거리다 선뜻 산딸기와 오디를 훑어 우리 손에 건넸다. 브릭스 단위로 마트에 진열되어 팔려나가는 과일들만 보다 오랜만에 접하게 된 산딸기는 팽성의 자연이 무슨 맛인지 가르쳐주었다. 팽성은, 새콤달콤하면서도 진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

이대성 기증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로 살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농부로 살았다고 했다. 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이후로는 취미생활과 농사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이 농사를 돕는 것이 싫어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떻게든 농사를 하지 않기 위해 교편을 잡았는데 말이다. 막상 직업을 갖게 되니 농사를 짓는 것이 좋아졌다 한다.



호미



툽



낫

지금은 힘에 부쳐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창 젊은 시절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밭에서도 일하고 바쁘게 살았다. 손때가 잔뜩 묻고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이 가득한 호미와 낫, 자기가 번 돈으로 처음 통복시장의 문화철물점에 가서 산

톱 등의 농기구가 이대성 기증자의 부지런한 삶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부모님의 손길이 깃든 집에서 나이들어 간다는 것

"이런 것 까지 가져가려고?"

집에 들어서자 창고를 열어 보여준 것은 농기구 외에도 다양한 생활용품들이었다. 백사기 그릇은 어머니가 구매해서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쓰던 것이었다. 국그릇 바닥에 무수히 많은 굽힌 자국이 있었다. 아마 숟가락에 의한 자국일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으며 이대성 기증자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했다. 예전에는 끼니마다 상 하나로는 모자라던 시끌벅적하던 밥상은 가족들의 출가로 단출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쓰이지 않는 그릇들이 창고에 잠자고 있었다.

또 이제는 단종되어 나오지 않는 성냥도 있었다. 이제는 출가해 전부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도 제법 성장해 버린 자식들이 어릴 때 사 놓고 쓰지 않은 성냥이라고 했다. 학교 숙제를 위해 샀던 것일까, 집에서 필요해서 샀던 것일까. 이대성 기증자가 가정을 이루고 집안이 아이들로 북적북적하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재봉 가위 역시 눈에 띄었다. 이대성 기증자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에서 바느질을 하실 때 사용하던 가위라고 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재봉틀을 잘 쓰시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직접 옷감을 사 오셔서 자식들의 옷도 만들어 주셨을 정도였다. 당시 어렸던 이대성 기증자에게는 활동하기 편한 배바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린 눈에는 배바지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것 같아 입지 않으려고 떼

를 썼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가위를 가져가 전시해도 되냐고 묻자 이런 것 까지 가져
가냐고 말씀하시면서 괜히 오라고 했다면 장난스럽게 투덜대셨다. 이대성 기증자에
게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어떠냐고 묻자, 좋다고 대답하셨다. 오래된
고향, 물건의 가치가 희박해지고 새것, 서울만 환영받는 요즘, 팽성에서 나고 자라 늙
은 이대성 기증자의 대답에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진한 사랑이 느껴졌다.



바가지



백사기그릇



기린표통성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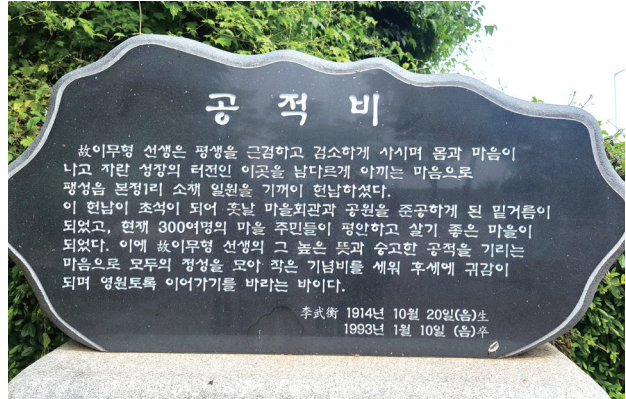


재봉가위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교장선생님

"아유 그냥 마을을 위해서도 교장 선생님처럼 일하시지"

한창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는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
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아닐
까 생각했다. 조금 더 머리가 굵
어진 다음에야 교장선생님이
하는 역할을 알게 되고 그 책임
의 무게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이대성 부친인 이무형 선생 공적비(본정1리 마을회관 앞)

달라졌다. 이대성 기증자는 소사벌초등학교를 비롯해 평생을 평택의 초등학교 선생
님으로 근무하셨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여정의 끝은 교장선생님이었다. 때로는 선
생님들을 어르고 달래며, 때로는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렇
게 교장선생님으로 학교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1971년 부용국민학교 졸업기념 앨범

그러나 이대성 기증자의 교장
선생님 노릇은 교정을 벗어나서
도 계속되었다. 집에 오면 농부
가 되었던 것처럼 마을에 돌아
온 이대성 씨는 교장선생님처럼
마을을 돌보는데도 열심이었다.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대성 기증자를 칭찬한다. 언제나 마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신경쓰고, 주민들의 대소사에 함께 기뻐하고 마음 아파해주는 좋은 분이라고. 현재 마을의 노인회관 부지도 아버지가 기증하셔서 세워진 것이라 하니 이는 대대로 살아온 고향 마을에 대한 대를 이은 사랑이라 할 것이다.



1971년 부용국민학교 졸업기념 앨범



1973년 계성국민학교 졸업기념 앨범



1973년 계성국민학교 졸업기념 앨범

2. 이정숙 본정리



이정숙 가옥 유물 조사

시어머니의 흔적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즉 고부 관계는 가족 내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이 중의 하나이다. 서로 자라고 생활해온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이른바 ‘고부갈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고부 관계는 늘 수수께끼와 같은 알 수 없을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련하기만 하다.

이 아련한 기억은 시어머니가 쓰던 유물에서 비롯된다. 이정숙 기증자는 시어머니

가 사용하던 유물의 전부는 아니지만, 실패와 골무, 가위 등을 보관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 받아 자신도 1970년대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패는 인간이 바느질을 하면서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와 동물의 뼈 등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사용자 관심과 편리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실패가 만들어졌다. 이정숙 기증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실패의 재질은 나무이며, 가운데 문양이 새겨져 있다. 쓰다 남은 하얀 실이 감겨져 있으며, 바늘도 꽂혀 있다. 이 실패로 어른들의 바지저고리와 이불을 꿰매거나 시치는 데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가족들의 옷을 만들거나 구멍난 양말을 꿰매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패



골무

바느질하다가 잠시 한 눈 팔거나 소홀하면 바늘에 손가락을 찌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골무이다. 골무는 바느질할 때 바늘을 눌러 밀거나 손끝이 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둘째손가락 끝에 끼우는 바느질 도구이다.

그래서 실과 실패, 바늘과 골무는 늘 함께 있다. 이정숙 기증자도 이 네 가지를 잘 보존하고 있다.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골무는 가족으로 만들어졌으며, 여러 번 고쳐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가위

실패와 골무 외에 가위도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가위는 주로 옷감이나 종이, 머리털 등을 자르는 도구이지만, 집집마다 한두 개 정도는 소유하고 있다. 가위 역시 가족들의 옷을 만들거나 종이를 자르는 데 사용하였다. 이들 유물들은 이정숙 기증자는 시집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이정숙 기증자는 사용하던 빨래판과 소쿠리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보존하고 있었다. 빨래판은 주로 우물가에서 때가 묻은 의복을 깨끗하게 빨 때 사용하는 생활도구이다. 이 빨래판은 이정숙 기증자가 막내를 낳고 100일도 되지 않아 분가하였는데, 빨래를 빨기 위해 샀던 것이라고 한다. 재질은 나무이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소쿠리는 식품을 담아 말리거나, 곡물이나 채소를 물에 씻은 다음 물기를 빼는 데에도 사용하는 생활도구이다. 소쿠리는 집집마다 용도에 따라 크기에 다른 여러 개를 사용한다. 보존하고 있는 소쿠리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행상에게 구입하였다고 한다. 김칫거리 씻어서 물 빼고, 청국장 띄우고, 무 씻어서 말리는 데 사용하였다. 재질이 대나무인 관계로 사용하다 보면 한두 군데 망가지기도 했으며, 아껴 쓰기 위해 소쿠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무빨래판



소쿠리

3. 김선경 객사리



김선경 가옥 유물 조사

돌절구와 절굿공이 이야기

일반적으로 농가에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절구와 절굿공이이다. 절구는 곡식을 빻거나 찢는 데 쓰는 도구이다. 옛말에는 ‘절고’라고 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두구통’, ‘두구’, ‘절기방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택지역에서는 절구라고 한다. 절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이다. 이를 ‘절굿공이’라고 한다.

절구는 통나무나 돌 또는 쇠로 만들며, 그 재료에 따라 ‘나무절구’, ‘돌절구’, ‘쇠절

구’ 등으로 구분한다. 어느 절구든 윗부분에 우묵한 구멍이 있다. 절굿공이도 대부분 절구 종류의 같은 재료로 만든다.

쇠절구는 규모가 작으며 주로 양념을 다지는 데에 쓴다. 나무절구 중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을 ‘양념절구’라고 한다. 나무절구는 위아래의 굽기가 같은 것이 대부분이나 남부지방에서는 허리를 잘록하게 좁힌 것을 많이 쓴다. 이에 비해 돌절구는 상부에 비하여 하부를 좁게 깎으며, 특히 아랫부분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에 조각을 베풀기도 한다. 절구의 크기나 형태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절굿공이의 재료나 모양도 절구에 못지 않게 다양하다. 나무공이는 위아래가 둥글고 손에 쥐 부분만 파내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공이의 끝부분에 돌을 박아서



돌절구



절구공이

쓰기도 한다. 돌공이는 공이 끝에 나무 자루를 박으므로 자루와 몸이 직각을 이룬다. 쇠공이 중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

김선경 기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절구는 돌절구이다. 모양은 부채꼴이며, 아랫부분 보폭하지 않고 납작해서 사용하기 좋게 세울 수 있다. 절굿공이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돌절구와 절굿공이는 다 상태는 양호하다.



뒷마당에 있던 돌절구와 절굿공이

이 돌절구과 절굿공이는 예전부터 가족들이 사용해 오던 것으로 1950년경부터 집에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주로 소금이나 고추를 빻을 때 사용하였다. 돌절구는

집 마당 뒤쪽에 있었는데, 잘 사용하지 않아 보였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에 이어 최근 까지도 아내가 사용하였는데, 아내 사후에는 김선경 기증자가 고추를 찢는 데 종종 사용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돌절구만 기증받으려고 하였는데, 공이가 있다고 해서 절굿공이까지 기증받게 되었다.

4. 물항아리

기증자 안정리

3대가 사용한 물항아리

안정리는 팽성읍의 중심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위군 서면에 통합되어 서정자와 안현의 안(鞍)과 정(亭)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안정리가 되었다. 그 뒤로 안(鞍)이 안(安)으로 바뀌면서 안정리(安亭里)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안정리는 현재 안정10리까지 분할되었는데, 원정1리가 처음 조성된 원마을이다.



물항아리 기증자 가옥 유물 조사

물항아리 기증자는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다. 유물 조사를 위해 원정4리 등 몇몇 주민센터와 노인회관을 찾았으나 모두 문이 닫혀있었다. 아마도 코로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방문한 조사자의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였다. 빈손으로 일을 마치기 아쉬워하던 차에 오창환 기증자 맥을 두들겼다. 한참 만에 인기척이 나더니 기증자가 나왔다.



위에서 본 물항아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혹시나 쓰던 물건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기증자는 물항아리가 있다고 하였다. 물항아리는 어머니가 쓰시던 것으로 물려받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집 뒷마당에 두고 있었다. 조사간 일행과 함께 킁킁거리며 밖으로 꺼냈다. 세상에

새로 빛을 보게 된 물항아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으로 3대가 사용하였다. 시기를 헤아려보니 1920년대부터 사용하던 것이었다. 3대를 사용하였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하였다.

처음에는 땅에 묻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물항아리는 성인 허리보다 높을 정도로 크기가 컸다. 지금은 이 물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생활의 필수 도구였다. 집 대문을 나가 조금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물을 길러서 물항아리에 담아두었다. 받아둔 물은 밥을 짓거나 세탁, 채소를 씻을 때 사용하였다. 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 긴요하게 썼던 생활 도구였다.

물항아리를 기증받든 후 집안을 둘러보던 중 키가 눈에 들어왔다. 키는 아랫방 밖에 걸려있었다. 키를 지금도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증 의사를 묻자, 꽤히 승낙하였다. 키는 60cm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은 사용하기 적당하였다. 어머니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다. 키의 안쪽은 구멍이 난 부분을 천을 붙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는 키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키 앞면



키 뒷면



천을 붙여서 사용한 키

5. 사진기 기증자

안정리

사진기로 삶을 찍다

안정리 유물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조사자는 일정으로 두 번밖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조사에서 많은 유물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바로 사진기 기증자 덕분이었다.



즉석 카메라_폴라로이드 636

기증자는 안정리 토박이였다. 이제는 토박이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지만, 기증자는 다양한 삶을 들려주었다. 기증자는 사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찍어주는 사진사로서 안정리 터주대감이었다.



즉석 카메라_후지 인스탁스 200



필름 카메라_캐논 G-Ⅲ QL

즉석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사용한 손때 묻은 필름카메라 캐논을 보여주었다. 기증자는 주로 미군들의 삶을 찍어주었는데, 사진사가 된 동기는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이 사진 찍는 일을 하겠다며 카메라값을 빚져 놓고 일을 그만두어 이를 대신하여 사진을 찍게 되면서 직업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기증자가 처음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이른바 필름 카메라가 대세였다. 처음에는 흑백 필름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컬러 필름을 사용하였다. 흑백 사진은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였다.

사진을 찍은 후 암실에서 인화한 사진을 다음날 전해주었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수입도 점점 줄어들었다. 새로운 방안을 찾던 중 촬영하면 바로 인화된 사진을 출력해주는 즉석카메라가 있었다. 하루는 미군이 흘리고 간 20달러에 사진값 5달러를 보태 서울에서 즉석카메라를 구입하였다. 이후 이 즉석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즉석카메라는 두 종인데, 하나는 폴라로이드이고, 다른 하나는 후지 필름의 인스탁스이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기종은 폴라로이드 636 클로즈업(Polaroid 636 Closeup)은 1996년에 출시되었다. 제조사는 유나이티드 킹덤(United Kingdom)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인스탁스의 기종은 인스탁스 200(instax 200)이며, 제조사는 후지 필름(Fuji Film)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만, 렌즈 왼쪽이 깨져 접착한 듯하다. 이 두 종 즉석카메라는 현재 단종되었다.



항아리



쥐덫



삽



가래



모래채

기증자는 카메라 외에도 삽, 항아리, 쥐덫, 가래, 모래채, 논 물길 내는 농기구, 수동 농약 살포기 등 생활 도구와 농기구를 기증하였다. 쥐덫은 1990년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쥐이다. 1년 동안 잘 키우고 수확한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쥐다. 지금이야 쥐가 크게 사라졌지만 1990년대만 해도 쥐가 많아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쥐가 모두 퇴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한 쥐덫을 집집마다 설치하곤 하였다.



논 물길내는 농기구



수동농약살포기

기증자가 사용한 쥐덫은 철망으로 만들었으며, 덫 안에 쥐가 좋아하는 것을 두어 유인하였다. 쥐가 이를 먹으려고 덫 안으로 들어오면 문이 닫힌다. 이 쥐덫은 창고 안에 있는 쥐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녹이 많이 슬었다.

지만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

농기구 중에는 흥미로운 것은 ‘논 물길 내는 농기구’이다. 벼농사는 논과 물이 있어야 보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많은 농기구가 있는데, 기증자의 물 대는 농기구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다. 물을 끌어들이는 길을 만들기 위해 끝에 V자 형태의 철판을 달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쇠 파이프를 자루를 달았다. 언뜻 보기에는 삼의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기증자의 카메라와 생활도구 및 농기구는 팽성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이중하 안정리

서울여자, 평택남자

"사람들이 그런 촌으로 왜 가냐고 그랬어"

이중하 기증자의 아내는 서울 사람이었다. 그것도 서울 변화가에서 살았던 집안의 딸이었다. 그러나 돌연 평택 남자를 만나 평택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지금이야 평택도 첨단 반도체도시로서 엄청난 가능성과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때의 평택은 미군기지가 있는 농촌이었다. 당시 서울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도대체 서울에서 곱게 자란 처녀가 왜 평택 깡촌으로 시집을 가냐고, 가서 적응할 수 있겠냐고. 그 이유를 물은 조사팀의 질문에 아내는 이중하 기증자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멋지잖아요.” 아마 이것이 사랑의 힘이리라.



이중하 가옥 유물조사

서울 여자는 평택 남자를 만나 사방이 농지인 안정리로 이사왔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고 있다. 선뜻 들어오라며 손짓하는 이중하 기증자 댁은 다른 집에서 보기 어려운 이름모를 꽃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울 여자의 보살핌과 평택 남자의 돌봄에 큰 꽃들이다.

누가 키에 명주실을 감아두었나?

"이거 하나 남았어, 어머니 물건은"

이중하 기증자는 어머니 채귀선씨가 쓰시던 키를 우리에게 기증했다. 작은 텃밭을 일구고 마당에서 정원을 가꾸는데 종종 사용하던 키라고 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키는 여기저기 손때가 묻고 낡아 보였지만 어디 한 군데 부서진 곳이 없었다. 오랜 세월을 사용했음에도 부서지지 않은 이유는 키의 테두리마다 꼼꼼하게 둘러놓은 명주실 덕분이었다.



키

명주실은 어머니가 키를 사용하시면서 직접 묶어두신 것이라고 했다. 아마 키의 테두리가 벌어지거나 하여 곡물을 까부르는데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았다. 명주실을 감아둔 키의 모습에서 어머니들의 입버릇같은 잔소리

가 들리는듯 했다.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아이처럼 보인다고 했던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장성한 자식에게도 잔소리를 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혹시나 키가 벌어질까 묶어 둔 명주실에서 잔잔하게 느껴졌다.

This sound was made in USA

"미군 부대에서 쓰던 전화기야"

집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전화기가 조사팀의 눈에 띄었다. 요즘은 집에 전화기를 잘 두지 않는다고 하자 이중하 씨가 전화기가 미군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제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과거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평택에 미군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흘러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화기를 뒤집어보자 철판 된 바닥에는 Made in USA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미제 유선전화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한지도 어느새 70여년이 되
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군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군과 함께
한국을 지키고 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
의 없다. 하지만 평택 사람들만큼

이 사실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미군은 어쩌다 가끔 뉴스에서나 보는 존재지만, 이들에게 미군은 어려울 때 도와주
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평택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형성해 간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였을 것이다. 안정리 어느 노인의 집에 미군에서 쓰던 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은
이런 평택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안정리, ‘서울상사’를 아시나요?

비까뽀뽀 이쁜것만 팔아요

1970~80년대 기지촌 경기가 좋을 때 안정리에만 ‘한희양행’, ‘태양양행’, ‘서울상사’ 등 20여 개의 양품점이 있었다. 물자가 귀하고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 멋부리던 여성들과 기지촌 직업여성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양품점. 상인들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 올라가 물건을 사다 팔았다. 당시 양장점(의상실)은 맞춤복 전문, 양품점은 기성품 의류와 여성 잡화등을 취급했다. 읍내 5일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던 곳이다.



캠프험프리스 정문 앞 풍경(1970년대)



박수남의 화성국민학교 제1회 졸업사진(1950)

‘서울상사’ 박수남과 이목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안정리에서 ‘서울상사’라는 양품점을 운영했던 박수남(1938년생)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가 고향이다. 지금은 수몰되어 사라진 화성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1956년 공주 마곡사가 있는 동네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평택 지제리 출신 이목규(1933~2002)를 만나 1961년 결혼하고 1965년 시댁의 연고가 있는 평택으로 이주하여 안정리 113-17에 자리를 잡는다. 그곳에서 1987년까지 양품점을 운영하다 세를 주었다. 현재 브룩스라는 상호로 이름만 바뀐 채 운영되고 있다. 다른 가게는 00양행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서울상사라고 명명한 이유는 남편 이목규의 다른 상점과의 차별화(?) 전략이었던다.



서울상사 앞 이목규(1975)

이목규는 평택 지제리 용인이씨 집안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박수남을 만나고, 미군부대 종업원을 하다 그만두고 아내 박수남이 ‘서울상사’를 운영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



가족사진(1985)

양품점 뒷방에서 4남매를 키웠어

교육열이 남달랐던 이목규와 박수남은 슬하에 1녀 3남을 두었는데 장녀 이호진은 성동초와 평택여중고, 공주사대를 나와 현재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장남 이종화는 평택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소장으로 예편했다. 차남 이종혁은 안성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이며 막내 이종관은 평택시청 팀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가족이다.

이목규는 지병으로 2002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집앞에서 아버지 이목규와 막내 종관(뒤로 일성상회 대림약국 대명전자와 한일상회가 있고 앞으로는 국제미용실, 성환상회 맞은편으로 고려전파사 옆 책방, 서울상사, 평택양품, 당진식당이 있었다.(1974)



서울상사 앞 차남 종혁과 막내 종관(1974)



서울상사 옆집 평택양품점에서 신발고르는 박수남(1983)



서울상사 앞에서 임마누엘어린이집 원복을 입은 막내 이종관(1974)

세월은 갔어도 흔적은 남아

서울상사 자리는 박수남이 소유한 채 세를 놓았고, 현재 '브룩스'라는 상호로 여성양품점의 맥을 잇고 있다.



브룩스라는 상호로 운영중인 서울상사 자리에 선 박수남(2023)



팽성읍 내리뒷산 나들이(1973)



임마누엘 어린이집 앞에서 막내 종관(1974)



소풍다녀와서 큰아들 종화와 장녀 호진, 막내 종관(1974)



부용국민학교 3학년 막내 종관과 학교 기린동상(1977)

8. 김병년 안정리



리모델링 중인 '로미오와 줄리엣' 앞에서 유물조사

사진 하나, 추억 하나

안정리 134-2번지 구멍가게 앞에서
어머니와 저, 누나와 저의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구멍가게로 주로 어
린이들이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와 생활
에 필요한 물품, 과자, 과일, 술, 담배 등
판매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골의
구멍가게였습니다.



가게앞에서(1968)

구멍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수시로 간식이나 군것질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초콜릿 같은 군것질거리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먼저 맛보게 달라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파는 물건이니 손을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녁에는 저에게 하



가게앞에서(1968)

나씩 쥐여주셨죠. 어머니께서는 마음껏 주고 싶었지만 풍족지 않았던 살림에 못 주어서 미안했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나와 찍은 사진에서 오른쪽의 아저씨는 옆집 정육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저희 가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정육점이 한쪽에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멍가게와 더불어 양옆의 있던 공간까지 함께 매입하여 신축 중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저는 구멍가게 앞에서 헌병 벨트, 곤봉, 권총을 차고 무게 잡고 서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 한가운데로 저는 워킹 게이트를 바라보고 서 있고 뒤로는 평택 방향입니다. 구멍가게 맞은편에



가게앞 길목에서(1968)

있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양복점인 렉키라사, 중국음식점인 태화원, 일본식 건물의 방앗간 등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로 당시(1968년)에는 인프라가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군수물자가 지나가는 도로라서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안정리 사람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깨끗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약국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첫줄 왼쪽이 저이며 가운데 서울약국 큰아들, 오른쪽인 서울약국 둘째 딸, 뒷줄 왼쪽이 친누나, 오른쪽 서울약국 큰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약국 약사님은 저의 대부님으로 저희 집안과 가족



가게앞 길목에서(1968)

같이 지냈고 60년대 우리 가족이 안정리로 이주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진에서는 서울약국 오른쪽으로 시계나 선물용 물품 등을 파는 잡화점인 하니양행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차도 많이 다녀 위험해서 주로 게이트 주변 공터에서 술래잡기, 비석 치기, 야구, 축구 등의 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임마누엘 어린이집 2회 졸업기념(1973)

사진은 팽성읍 안정리에 있었던 임마누엘 어린이집 앞에서 찍은 졸업사진입니다. 저는 1972년부터 73년까지 다녔고 2회 졸업생으로 앞줄 왼쪽 두 번째에서 제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남

자 선생님은 외국인으로 선교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린이집의 위치는 안정리에서 내리로 가는 길가에 있었고,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정원은 20~30명 정도이며, 안정리 유일의 어린이집으로 많은 어린이가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에서 기억나는 것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독립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미군들이 한 아름 선물 보따리를 주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으며, 특히 소시지,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 글은 김병년 기증자 인터뷰를 1인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9. 방광문 안정리



부용이발소에서 유물조사



바리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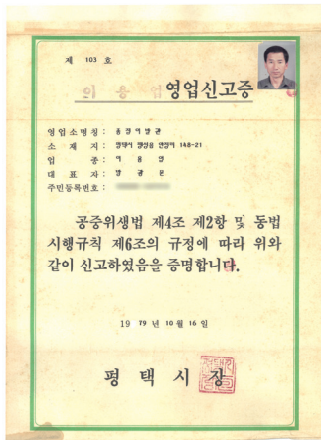


면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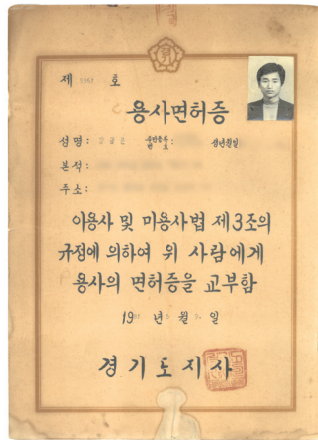
한평생 안정리에서 이발사로 살아왔어

안정리의 이발사 방광문 기증자는 1952년 상주에서 태어나 10대 중반 일찍 이발 기술을 배워 1967년 안정리로 이주하여 이발소에서 일당 200원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970년대 안정리에 종점이발관(안정리 148-21)을 운영하였고 이후 2000년대 부용목욕탕 내의 이발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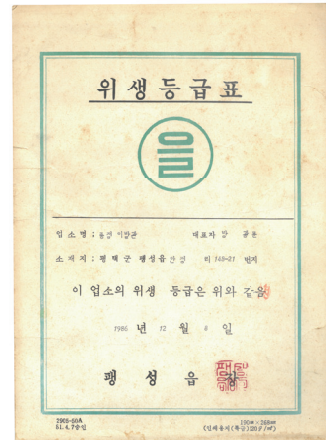
이발사로 살면서 결혼하여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다.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 미용실을 다녀 이발소를 찾는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중학교 때부터 50년 단골들이 ‘형님’ 하면서 찾아와 머리를 자른다.



영업신고증(1979)



이용사면허증(1981)



위생등급표(1986)

이발소 전성기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머리를 잘랐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는 1960~70년대로 당시 이발료는 800원에서 1000원 정도였다.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할 때까지 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머리를 잘랐다.

머리를 자르러 오는 사람들은 비단 남성만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들도 머리를 자르고, 여학생들도 이발소에서 단발머리를 잘랐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께 머리가 잘려 다시 다듬어 달라는 학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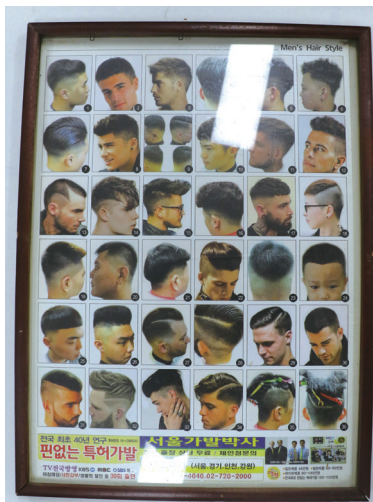
방광문 이발사는 한평생 안정리에서 이발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수동 바리깡(이발기)과 면도칼을 비롯해 이발 거울, 헤어드라이어, 요금표, 이발 관련 각종 서류 등을 기증해주었다.



업소용 헤어드라이기



이발거울



맨즈헤어스타일(1990년대)



뉴모델헤어스타일(1990년대)

이용요금표로 보는 시기별 이용요금의 변화

이용요금표		
이 발	6000	원
면 도	6000	원
세 발	4000	원
드 라 이	3000	원
아 동	2500	원
중 고 생	3000	원
염 색	1.0000	원
경노소지자		원

1989년 6월 20일
업소명: 종점 이발관
삼천한국이용사회경기도지회평택군지부

이용요금표(1989.6.20)

이용요금표		
업소명: 종점		
구 분	요	금
이 발	10.000	원
컷 트	8.000	원
면 도	8.000	원
세 발	6.000	원
드 라 이	4.000	원
중 고 생	5.000	원
아 동	5.000	원
염 색	15.000	원

※정기휴일 요일입니다.
1990년 1월 1일
삼천한국이용사회경기도연합회평택시군지부

이용요금표(1990)

이용요금표		
업소명: 종점 이발관		
구 분	요	금
조 발	8.000	원
면 도	8.000	원
세 발	4.000	원
드 라 이	3.000	원
중 고 생	3.000	원
아 동	5.000	원
경노소지자	8.000	원
염 색	12.000	원

1991년 6월 1일
삼천한국이용사회경기도지회평택군지부

이용요금표(1991.6.1)

이용요금표		
업소명: 종점		
구 분	요	금
이 발	8.000	원
면 도	8.000	원
세 발	5.000	원
드 라 이	4.000	원
초중고생	4.000	원
염 색	14.000	원

서기1992년10월 일
삼천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평택군지부

이용요금표(1992.2)

이용요금표		
업소명: 종점		
구 분	요	금
이 발	9.000	원
면 도	9.000	원
세 발	8.000	원
드 라 이	5.000	원
초중고생	5.000	원
염 색	16.000	원
조 발	7.000	원

서기1992년10월 일
삼천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평택군지부

이용요금표(1992.10)

이용요금표		
업소명: 종점		
구 분	요	금
조 발	9.000	원
면 도	9.000	원
세 발	7.000	원
드 라 이	5.000	원
중 고 생	5.000	원
아 동	"	원
경노소지자	7.000	원
염 색	16.000	원

1994년 7월 일
삼천한국이용사회경기도지회평택군지부

이용요금표(1994)

10. 안국진 두정리

1935년 미남과 미녀가 만났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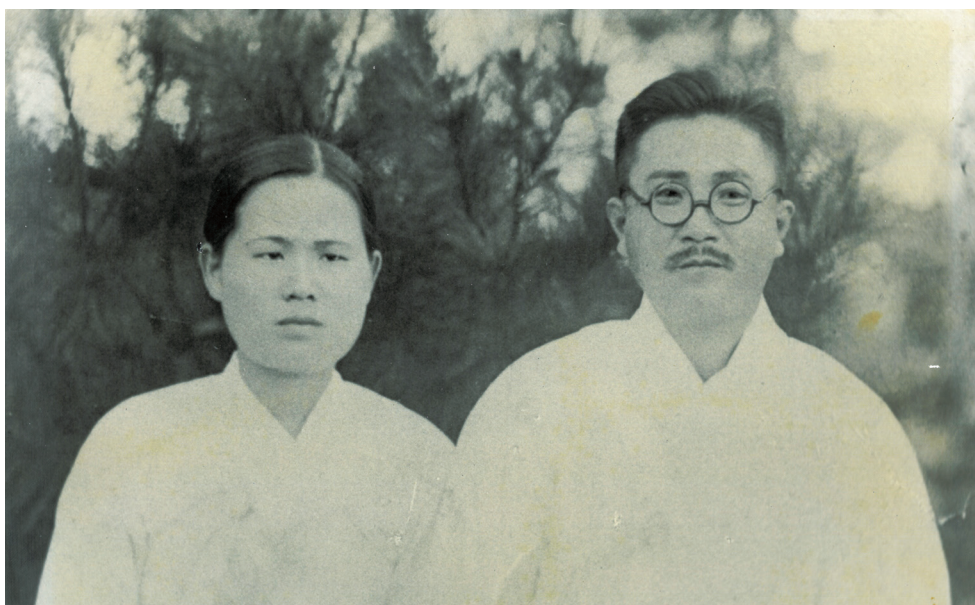
안국진 기증자는 별 다른 건 없으며 사진 하나를 내밀었다. 사진에는 멋지게 가르마탄 머리에 안경을 쓰고 콧수염이 진한 미남과 단아한 미녀가 있었다. 누가 묻기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사진을 바라보는 안국진 기증자와 뒤에 선 가족들의 시선이 파스했다. 그리고 안국진 기증자의 부모님이 구성한 가족은 서로 간에 사랑이 가득해보였다.

아버지 안귀달과 어머니 박봉녀는 서울에서 만났다. 평택의 안귀달 씨

와 부여출신 박봉녀 씨가 어떻게 1930년대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어머니 박봉녀는 부여에서도 소문난 미녀였다고 한다. 꽃다운 시기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가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당연히 용모가 출중해야 뽑힐 수 있었다. 부여에서는 박봉녀가 뽑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일



안국진 가족에서 유물조사



안귀달 박봉녀 흑백사진

하게 된 백화점은 현재 충무로 신세계 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이었다. 때마침 서울에서 일하시던 안귀달은 박봉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미남과 미녀가 만나 사랑을 꽃피웠다. 안국진 기증자가 보여 준 사진은 1935년, 그때의 추억이 담긴 것이라고 한다.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고, 씨도독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 무엇보다 피가 섞인 가족의 이끌림과 닮아감을 잘 알려주는 말일 것이다. 그만큼 가족은 특별한 존재이며 때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서로가 닮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안국진 기증자도 그랬다. 평택을 떠나 서울에 직장을 구했던 안국진 기증자는 직장에서 아내인 한소제를 만나게 된다. 서울에서 짝을 만나 사랑을 꽃피우고 평택에 자리를 잡은 것은 유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물림이다.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

평택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던 안국진 기증자는 중국 일조대학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치다 다시 평택에 돌아와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두정리의 천생연분 2대(代)가 따로 없다.

다듬잇돌 위에서 가족의 삶을 펴낸 어머니

"그래도 이걸 잘 보관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쓰시던 거라"

다듬잇돌은 다듬이 방망이 없이 수돗가 한 켠에 고이 모여져 있었다. 잔디마당 옆 수돗가에 있어 이끼가 끼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다듬잇돌은 깨끗했다. 무거워 집안으로 옮겨두진 않았지만 얼마나 정성껏 관리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다듬이질을 하지 않다보니 방망이는 어느 샌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마당에서 보관중인 다듬이돌

이 다듬잇돌은 어머니가 쓰시던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해 평택으로 오신 뒤 이 동네에서 쭉 사셨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옷을 빨고, 다듬이질하고, 매 끼니 밥을 하며 가족들을 먹이고, 입혔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루하루가 똑같아 보이고 특별한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실제 우리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루 혹은 이틀이 아니라 지겹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다는 것을.

아마도 어머니 역시 그랬을 것이다, 우리네 어머니처럼. 수십 번 수백 번 빨래를 두드려 펴는 다듬이질 과정에서 지리하고 고단하게 반복되는 방망이질을 통해 가족들의 삶이 반듯하게 펴졌을 것이다. 고된 일에 구겨진 남편의 자존심,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미래,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이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꿈까지. 끊임없는 다듬이질을 통해 가족들은 내일도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펴진 옷을 입고 집안으로 행복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안국진 기증자 어머니가 직접 사용하셔서 손때가 묻은 다듬잇돌은 단순한 다듬잇돌이 아니라 가족의 주춧돌이었던 셈이다.

11. 서봉희 두정리

텃 빈 뒤횈에 가득한 100년의 삶

"이게 어떤 뒤횈인데, 직접 짠 거야"

서봉희 기증자에게 박물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뒤횈을 기증받아 옮기려는 찰나 양충석 씨가 다급히 다가오셨다. 그리고 대뜸 이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뒤횈은 현재 이 집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살아온 집안의 유물이라는 것이었다. 뒤횈은 공산품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진 것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 뒤횈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농이던 양 씨 집안을 먹여살릴 양식의 저장고로 그 소임을 다해왔다.



서봉희 가옥에서 유물조사

뒤횈은 안채 맞은편에 있는 행랑채에 있었다. 집안에 손님이 머물 수 있는 행랑



뒤주

채가 있고, 행랑채에 방이 2개가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 두정리 양 씨 집안의 위상을 잘 알 수 있었다. 부잣집이었기에 늘 드나드는 손님도 많았을 것이며, 집안 사람들을 위한 밥뿐만 아니라 손님을 위한 식사준비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서봉희 기증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만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다. 그리고 뒤주는 시어머니 시절부터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쌀을 보관함으로써 서봉희 기증자가 만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양충석 씨가 이 집에 태어났을 때는 초가집이었지만 안채, 사랑채, 광채 해서 건물이가 4채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집을 새로 고치면서 행랑을 허물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잘 지어진 집을 굳이 허물지 말라는 만류에 그대로 두고 창고로 쓰고있었다. 고개를 들어 성주신이 앉아있을 것 같은 서까래를 보고있으려니 집 자체를 박물관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봉희 양충석 씨 태은 1923년이며 동시에 2023년이였다.



대형시루



소형시루

천석지기 집안의 떡 만들기

"일반 가정집에 이만한 시루는 필요 없지"

시루 위에는 사기로 된 시루가 있었다. 과거 두정리에서 서봉희 기증자의 시할아버지인 양석환은 집안은 부유하여 천석지기 부자라고 불렸다. 두정리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둔포, 팽성, 진천에도 일부 땅이 있었다. 양충석씨가 기억하는 할아버

지는 멧돼지 사냥을 다니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다.

집에는 머물면서 일하는 일꾼이 열한명이나 되었고, 손님도 많았다. 농사가 어려워질때면 쌀을 꾸러오는 가난한 집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하게 굴지 않으셨다. 마을 사람들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씀씀이는 시루의 크기로도 표현되었다. 서봉희 씨는 시렁 위에 있는 시루 두 개를 꺼내며 작은 시루는 보통 집에서 가지고 있는 크기의 시루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큰 시루를 가리키며, 이 시루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먹기 위한 떡을 찰 때 사용하던 시루라고 말했다.

가을이 되면 천석꾼 양 씨 집에서는 떡 찌는 달큰고소한 냄새가 집 밖으로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떡이 다 만들어지면 부지런히 떡을 나르는 일꾼들, 떡을 받아 나누어 먹는 사람들, 엄마를 따라와 입 안 가득 떡을 넣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고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해마다 커다란 시루 안에 가득했을 것이다.

뒷박과 함께 닳아버린 여자들의 삶

"서러워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지"

온양에서 시집와 온양온천댁이라 불렸던 서봉희 기증자는 시집온 후 친정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종갓집 만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왔다. 하지만 어찌 만며느리라고 다 같은 만며느리라, 천석지기 소리를 듣고 1년에 제사가 15번씩 있는 종

갓집 살림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터. 말이 집안 살림이지 움직이는 재산의 양만 보면 중소기업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친정에서는 출가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운하고, 시댁에서는 늘 제일 마지막 순위인 것 같아 서러운 며느리의 삶을 살면서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은 언제나 가재도구들이었다. 물려받아 사용한 뒤주, 맷돌, 시루, 말통, 뒷박 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이던 시절부터 서봉희 기증자가 며느리이던 시절까지 집안 여자들의 곁을 늘 지켜주는 도구들이었다.

철테를 둘러 벌어지는 나무 틈을 잡아주는 말통, 모서리가 뭉툭하게 닳아버린 뒷박, 어처구니를 잃어버린 맷돌. 너무 많이 낡고, 오래되어 이제는 더 이상 잘 쓰이지 않지만 이 도구들의 낡은 모습은 한 살림을 책임지던 집안 여자들의 삶을 이상하리만치 닳아있다.



뒷박



만



맷돌

12. 강호흔 남산리

남산리와 진주강씨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서 나고 자란 강호흔 기증자는 300년을 집안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 개구리를 잡아 엿과 바퀴먹거나, 훈련 나온 미군에게 껌이나 초콜릿을 얻어먹곤 했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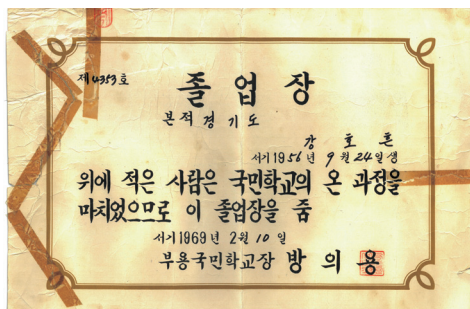
“6학년 때부터 갑자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평택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죠”



평택향교앞에서 강호흔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강호흔 기증자는 고3 시절 육사에 지원해

당당히 합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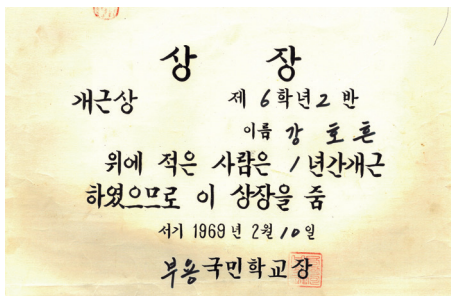
부용국민학교 강호흔 졸업장(1969.02.10)

“제가 당시 육사에 들어갔으면 37기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데 아버지의 만류로 결국 입학을 포기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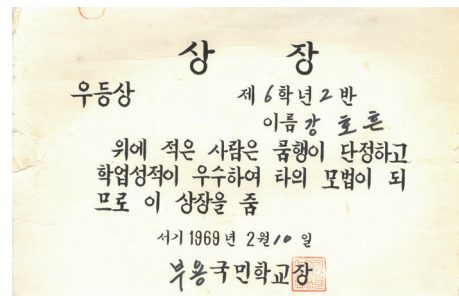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그는 선배의 권유로 아주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학비를 들이지 않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죠. 처음에는 삼성전자 컴퓨터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IT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한 강호흔 기증자는 세계 각국을 돌며 선진기술을 들여오고 새로 개발하는 일을 지속했다.



부용국민학교 강호흔 우등상장(1926.02.10)



부용국민학교 강호흔 개근상장(1969.02.10)

“지금도 IT 서비스 유통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능력이 사양재 강호보와 그 형제의 대를 이어온 진주 강 씨 집안 가계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됐죠”

강호흔 기증자는 어린 시절 집안 역사나, 사양재 강호보 등 선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제 나이 마흔쯤 돌아가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집안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남으로서 집안의 역사를 알아야겠
다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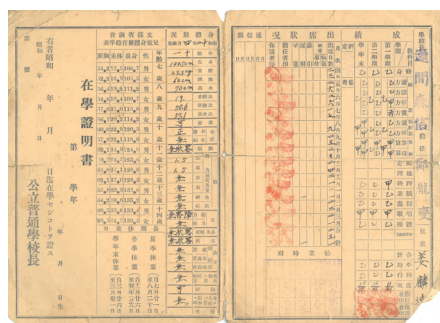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 역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한 일은 가보로
내려져 온 포도그림에 적힌 한자를 해석하는 일이었다.

“고교 은사님을 찾아가 한문 풀이를 부탁드렸습니다. 은사님 덕분에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곳에 강호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이때 사양재 강호보라
는 인물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컴퓨터 문서를 활용해 집안의 족보를 정리했고, <나의 인터넷 한글
전자족보와 뿌리를 찾아>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부용공립보통학교 통지표 4학년 강인원
(1937.10.09)-1



부용공립보통학교 통지표 4학년 강인원
(1937.10.09)-2

이러한 활동이 빛을 발한 것일까 강호흔 기증자는 9년 전 한 학자로부터 사양재
강호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연락이 와 알고 보니 학계에서는 이미 사양재 강호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80여 명의 학자가 이분을 연구해왔던 것이었죠”

그는 이후 사양재 강호보 직계손을 찾기도 했다. 강호보의 동생, 강연보의 직계손으로 평택 팽성지역에 대를 이어 살아온 강호흔 기증자 집안이 대대로 사양재 강호보의 묘를 관리해왔고, 이 묘에 대한 사실을 직계손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직접 지도를 그려놓으셔서 묘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직계손을 찾기 위해 4~5년간 족보에 나온 주소지를 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5년 전쯤 우연히 직계손을 찾았고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호흔 기증자는 사양재 강호보 연행일기 <상봉록>을 현대화한 <1727년 사양재 강호보 상봉록 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이 과정에서 잘 못 불러왔던 그의 본래 이름을 되찾기도 했다.

“사실 학계에서 강호부로 불러왔는데, 사양재 강호보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한 문본을 해석한 <상봉록> 언해본에서 ‘강호보’라는 이름을 찾았고, 이를 학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사양재 강호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누구보다 효심이 깊고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호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동생과 함께 진사했지만, 고향에 남아 수학했고, 65세가 돼서야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 다시 과거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당시 임금인 영조보다도 6살 많은 상태였죠. 그렇게 종1품 승록대부까지 지내고 은퇴해 89세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강호흔 기증자는 후대에 누군가 또 집안 역사를 연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양재 강호보와 가계를 연구하고 있다. 선조의 족적을 찾아 남겨놓으면 결국 쓸모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평택시에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기증할 계획이라는 그는 앞으로도 사양재 강호보에 대한 연구와 번역 활동을 지속해 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후손으로서 학자들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강호흔 기증자의 노력으로 사양재 강호보가 평택의 새로운 역사 인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평택시사신문》(2021-4-26) 인용



트. 기타 수집유물



안정리 '로미오와 줄리엣' 조사유물 사진
-가게 앞에서-

여 백

1. 이운재



다듬이돌



자전거 펌프

2. 김달순



대형 소쿠리



소형 소쿠리



다듬이돌

3. 박영임



양철말통

4. 박성복



이쑤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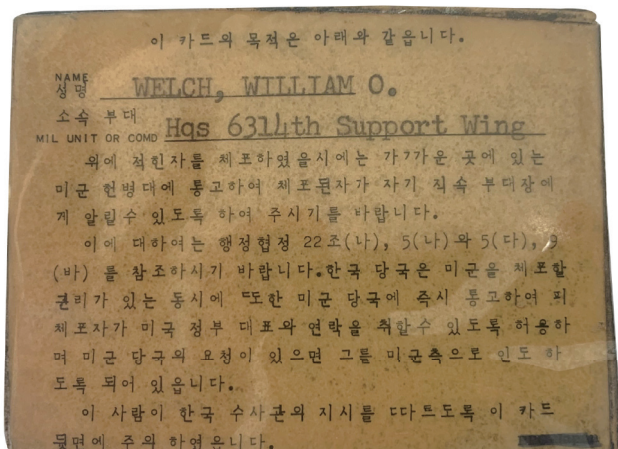
주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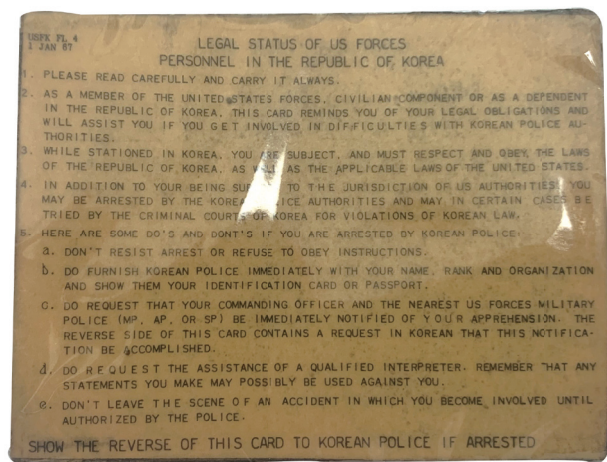
8회 MWR 감사메달



한미유엔지포라이터



미군장병카드-앞면



미군장병카드-뒷면

5. 안정리

농사 및 생활 유물



가마니 갈퀴-1



가마니 갈퀴-2



키



채



손저울



접시저울



전지가위



핸드드릴



톱



88올림픽성화등잔모양라이터



나무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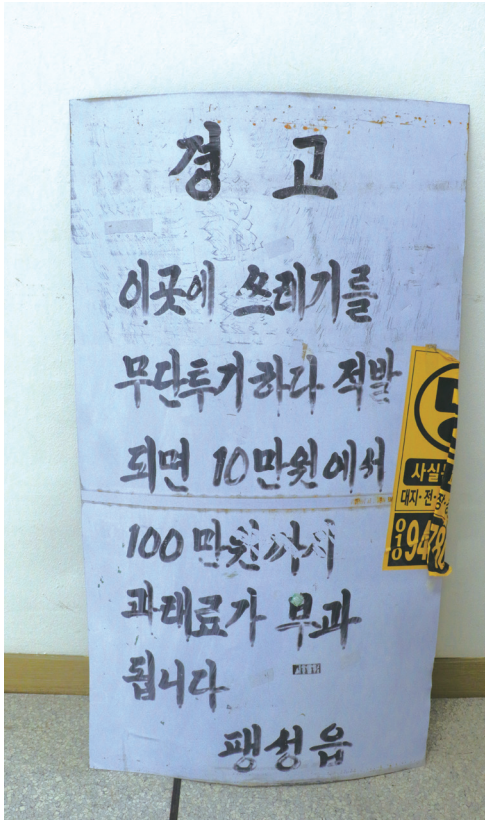
채반



패랭이갓

5. 안정리

마을 유물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안정리노인회 나무현판

5. 안장리

문구점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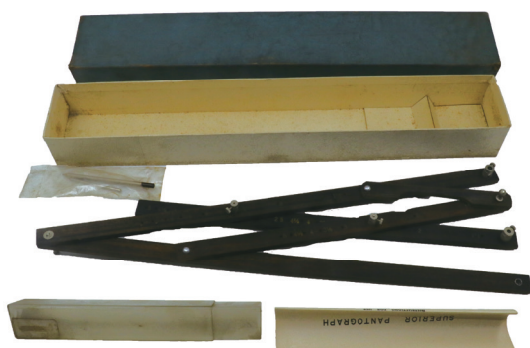
삼화양행 교수용 콤파스



한국산기 옥산주판



삼면자



일본산 제도기



편치



주판



클립보드



대동산업 접착테이프절단기

5. 안정리

미군관련 유물



미군공중전화기



군용 예비기름통

5. 안정리

휴게음식점 유물



비디오테이프



태극기



KGB 홍보물



밀리홍보물



안정다방배달용품SET(포장)



안정다방배달용품SET(내부)



메뉴판

여 백



Ⅱ. 조사후기



여 백

1. 성주현 책임연구원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

팽성은 경기도 평택시 남쪽에 위치한 읍이다. 동쪽으로는 천안시 성환읍, 북동쪽으로는 평택시 원평동 지역, 북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끼고 오성면과 안중읍,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과 접해있다. 도두리와 대추리 일대에 주한미군의 육군 기지인 USAG 험프리스가 주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낯선 지역이기도 하다. 평소 팽성읍 지역으로 갈 기회가 많지 않았다. 아산시 염치읍으로 갈 때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팽성 읍내를 가로지른다. 객사와 팽성읍사무소, 청담중고등학교를 지나면 미군 부대를 옆을 지난다. 스쳐 지나가던 팽성읍 이번 유물조사로 좀 더 가까워졌다.

유물조사는 첫날부터 강행군이었다. 나름 조사할 지역과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모임부터 바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유물조사는 무더위로 가득한 여름과 동행하였다. 마을 노인회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 역사는 이 분들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물씬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생활사였다.

집에서 들고나오는 크고 작은 유물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애지중지하던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하나하나 다 손때가 묻어나는 것들이었다. 모두 유물로 등록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 황수근 연구원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평택문화원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면서 팽성은 매우 친숙한 공간이다. 전근대에는 평택현의 공간으로 팽성읍객사·팽택향교·홍학사비각·농성 등의 문화재가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8대 조창 중 하나인 하양창이 설치되었고 조선 10대로 중 하나인 충청수영로가 지났으며, 망해산봉수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근대에는 부용산을 비롯해 팽성 각지에서 3·1운동이 일어났으며, 원심창을 비롯해 여러 독립운동가는 팽성의 자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말산·부용산 방공호, 일제해군비행장 건설, 그리고 팽성의 너른 들은 일제의 착취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아픈 역사가 있다. 그리고 현대 팽성의 캠프함프리스 미군기지 배치는 현재 팽성의 모습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렇듯 팽성은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와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평택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팽성은 이러한 역사와 더불어 생활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하면서 만난 이야기들은 텍스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으며 수집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도 어느새 과거의 팽성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났다.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들의 집과 일터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들은 각자 마을을 지키며 팽성의 삶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과정은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 팽성생활사박물관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만나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알아간다는 것은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3. 김민수 연구원

(평택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더웠다. 2023년 여름은 정말 끔찍하게 더웠다.

빈손으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날씨에 기증받은 유물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키, 소쿠리 등의 유물은 어려울 것이 없었으나 다듬잇돌, 맷돌, 뒤주, 독 등을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런 유물들이 확보될 때는 연구원으로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옮긴다’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현장은 생각보다 더 신경쓸 일이 많았다. 현지 구술조사 경력이 꽤 있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야기와 유물을 동시에 신경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실수가 만발했다. 다행스럽게 연구를 이끌어주시는 소장님과 책임연구원님, 팀장님 덕분에 크게 실수하지 않고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전공 덕인지 사람들이 형성한 스토리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다. 사람들과 삶을 함께한 물건과 거기에 얹힌 이야기들은 다른 곳에서 얻기 어려운 독특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쉽사리 듣기 어려운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평택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 이야기들은 손때와 함께 물건에 녹아들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물건들은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마주했다. 단순히 물건으로서의 유물이 아니라 기증자의 삶과 이야기를 조사하고 수집한 셈이다.

생활과 관련된 물건들이어서 그런지 대상이 되는 물건 자체는 대단찮은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물건의 가치가 곧 유물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평택 사람들이 평택의 발전과정과 함께 살아낸 인생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곧 평택의 문화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를 가진 유물들이었다.

더웠지만, 행복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연구원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평택시청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낯설었던 평택이라는 곳을 더 깊게 이해하고 정을 붙일 수 있었다.

3. 현장조사 사진









평택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발행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인 | 이보선(평택문화원장)

저 자 | 박성복, 성주현, 황수근, 김민수

주 관 | 평택문화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 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저작권자 | 평택시·평택문화원

ISBN 978-89-93983-69-2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시·평택문화원과 저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비매품/무료



9 788993 983692
ISBN 978-89-93983-69-2